

인삼메카서 24일간의 생명축제, 금산 인삼엑스포 개막

- 세계 15개국 참가... 9월 22일 ~ 10월 15일까지 일반 체험행사 가득 -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고려인삼의 세계화의 초석을 세울 '2006 금산 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종주지인 금산군 금산을 신대리에서 4년여의 긴 준비기간을 거쳐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9월 21일 열린 개막식에선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완구 충남지사, 김문규 충남도의회 의장, 박동철 금산군수 등 각계 인사와 인삼생산 농가, 인삼가공 유통업체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개막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개막식에 앞서 일렉씨너 그룹의 '전자마이올린' 공연과 '생명의 뿌리 인삼 주제영상' 상영, 성악가 임웅규씨의 공연, 인삼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타고(打鼓) 및 상처사 설화 무용 등 종합예술공연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보식 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02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무려 4년 동안의 준비가 모두 끝나 이제 관람객을 맞게 됐다"며 "인삼엑스포가 2002년 열린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이상의 성공을 거둬 세계적인 축제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엑스포가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는다"며 "무한한 생명의 꿈을 꾸고,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삼의 남북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한을 대표하는 금산 인삼과 북한을 대표하는 개성인삼을 연계 발전시켜 한반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22일 개장과 함께 관람객들을 맞는 인삼엑스포는 10월 15일까지 신대리 일대 10만8900㎡(3만3000평)에서 세계 15개국, 80개 단체가 참가하며, 주제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인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보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인삼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웰빙축제'다.

충남도 극적인 6번째 외자유치 성공으로 외자유치 물 올랐다

- 타 자치단체 경쟁과 무리한 지원 요구 등 어려움 속에 협상력의 승리 -
-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전문기업 ASM와 2000만달러 투자 MOU 체결 -

충청남도가 극적으로 민선 4기 6번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9월 7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이완구 충남지사와 아서델 프라도 ASM 사장은 천안벨리내에 2000만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MOU(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MOU에 따라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인 ASM은 향후 수 년내 (주)충남테크노파크가 소유한 660평 규모의 천안벨리내 공장시설에 최첨단 반도체 장비 R&D센터와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된다.

이날 MOU는 치밀하고 집요한 협상력의 승리였다. 그동안 ASM은 충남도에 투자 의향을 강하게 밝혀왔으나 뒤늦게 타 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날 오전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ASM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10억원 규모의 클린룸 설치를 투자 조건으로 제시, 충남도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승부수를 띄운 쪽은 충남도였다. 이완구 지사는 프라도 사장과의 단독 협상에 나서 클린룸을 설치해 줄 수 없으며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다른 기업이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한국 내 투자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프라도 사장은 경쟁관계의 타 자치단체를 제치고 인프라 등이 우수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완구 지사도 입주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10년간 임대료 보조, 전기·수도·가스 등의 차질 없는 공급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ASM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6개국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8억 6000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 1996년 대전에 ASM코리아(주)를 설립하고 국내 벤처회사인 지니텍(주)을 인수하기도 했다.

이로써 충남도는 이번 유럽 5개국 순방에선 2건의 외자유치를 달성하는 개가를 올렸다. 민선 4기 이후 외자유치 금액도 13억3400만달러로 늘게 됐다. 이완구 지사는 “이번 유럽 순방은 투자유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체득하는 값진 경험이었다”며 “자치단체장이 직접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다”고 말했다.

안면도 '초대형 테마파크' 조성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 일대가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변신한다. 대림산업 오션캠퍼스 컨소시엄은 안면을 꽃지 해수욕장 일대 총 115만4000평의 국공유지를 매입해 한국, 중국, 일본 등의 휴양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리조트를 조성한다.

총 1조2000억 ~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사업은 '바다와 꽃, 예술이 어우러지는 해양 리조트'를 표방하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전세계 스파를 체험할 수 있는 스파센터, 세계음식문화 테마파크, 선(仙)마을 등 독특한 휴양시설이 조성되고 연중 문화예술 행사가 끊이지 않는 글로벌 해양 문화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의 해양관광리조트 프로젝트 이외에도 건설업체들의 다양한 레저 프로젝트가 날개를 달았다. 주5일 근무로 여가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다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레저개발 사업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면도 ~ 보령 연륙교 건설로 주목받는 안면도 개발 : 안면도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안면도~보령간 연륙교 건설 프로젝트 추진 이후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충남도는 안면도 ~ 보령 간 14km의 연륙교를 올해 안에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충남도, 민선4기 시책구상 보고회 가져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제사-



충청남도는 9월 15일 도 대회의실에서 전 간부공무원과 시군 기획 감사실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실현을 위한 민선 4기 도정운영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선4기 균형있는 지역발전분야 등 도정 5대 정책목표별로 노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되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나후지역인 금강권 발전을 위하여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을 연결하는 광역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금산에 전국 이통장연합회 다목적 연수회관을 건립하며, 연기 특복시 및 당진시 승격 등을 제시했다.

또한 행정도시, 아산신도시, 도청이전지 등 도내 3개 건축프로젝트를 연결하는 1000만명이 찾는 건축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병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둘째, 함께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약 740만명의 재외동포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한민족 정신문화 허브를 조성하고, 백제역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10백제문화전을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개최하며, 지역문화자원의 관광화 및 보존 관리를 위하여 백제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지역 종교자원의 명품화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제시됐다.

셋째,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학·관협력 농촌관광 마을을 시군별 1개마을 16개소를 조성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노보

하며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수출탄 시상제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역동적인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백제의 전통예술과 고유의 맛을 홍보할 수 있는 백제의 집을 건립하고, 지역 첨단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천안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콘텐츠 창작전문가 아카데미 운영, 지역문화연구센터 설립 등 문화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순환형 축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깨끗한 복장을 2010년까지 200개소, 약취탈취상치 지원 232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930개소를 지원하며,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충남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

야울의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운영, 지역통합생태 네트워크 구축, 천수만·금강 생태공원도 조성해 나간다. 또한, 환경용량을 고려한 유역관리를 위하여 금강·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에도 구상보고된(안)을 토대로 관계전문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자문 받아 민선4기에 펼쳐 나갈 시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